

* 저희 코참의 경제정보 및 세미나 발송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office@kocham.ccsend.com 라는 메일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기존과 같이 office@kocham.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파월 연준 의장, 오는 일요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관련 논의 예정
- Bloomberg: 미 월간 일자리 보고서, 노동시장 계속 둔화 암시

[오일]

- Bloomberg: 유가 11월 초 이래 가장 크게 감소 ... 중동 분쟁 완화 가능성 보여

[무역]

- Bloomberg: 컨테이너 현물 운임, 173% 상승하다 ... 홍해 위협 때문

[중국 경제]

- CNBC: IMF,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주택 수요 반토막 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테슬라,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 리콜 ... 안전등 문제로
- CNBC: 미 소상공인들, “올해 초 사업 운영과 경제 전망에 낙관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Powell Will Discuss Interest Rates, Inflation on 60 Minutes Sunday

파월 연준 의장, 오는 일요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관련 논의 예정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일요일 CBS 뉴스 60분에 출연해 인플레이션 위험과 금리 인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기존의 금리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파월 의장은 다음 3월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 바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s Report to Show Slower Hiring Pace After Annual Revisions

미 월간 일자리 보고서, 노동시장 계속 둔화 암시

- 오늘 금요일에 발표될 미 월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연례 조정된 작년 고용수준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보고서는 고용주들이 1월에만 16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고용이 정부와 의료 분야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고 말한다.
- 이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이 계속해 둔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이 보고서를 작성한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은 1월 실업률이 12월의 3.7%에서 3.8%로 상승하고, 시간당 평균 소득 증가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Set for Weekly Loss on Gaza Ceasefire Talks and Ample Supply

유가 11월 초 이래 가장 크게 감소 ... 중동 분쟁 완화 가능성 보여

- 유가가 11월 초 이래로, 이번 주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중단될 기미가 있으며, 시장에 충분한 원유 공급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서부 텍사스유의 선물가가 배럴 당 74불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의 6% 가까이 급락했다.
- 종전과 인질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지만,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했다.
-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미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상업용 및 전략 비축유가 2백만 배럴이 추가되면서 미 원유 재고량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 OPEC+는 일일 원유 생산량을 49만 배럴 감산했으나, 이는 OPEC+가 설정한 목표한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무역]

Bloomberg: Spot Container Shipping Rates Soar 173% on Red Sea Threats

컨테이너 현물 운임, 173% 상승하다... 홍해 위협 때문

- 홍해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이 악화되면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간 단기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현물 운임이 173% 상승해, 4천불을 기록했다.
- 반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운임은 5천1백75불을 기록했으며, 일부 선사들은 1월 중순 이후 이 항로 이용의 운임을 6천불 이상 요구하기도 했다.
- 아시아에서 북미 동부 해안으로 가는 운임은 55% 상승해 3천 9백불까지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CNBC: IMF expects new housing demand in China to drop by around 50% in the next decade

IMF,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주택 수요 반토막 난다”

- 앞으로 향후 10년간 중국 내 신규 주택 수요가 약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12월 말에 작성되어, 금요일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IMF의 중국 대표인 Zhengxin Zhang는 1월 10일 성명에서 신규 주택 수요가 5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중국의 시장 침체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것이라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esla Recalls Millions of Vehicles Over Latest Safety Flaw

테슬라,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 리콜 ... 안전등 문제로

- 테슬라가 경고등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한 리콜 중 가장 큰 규모다.
-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기존보다 더 작은 글자 크기의 경고등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 이번 리콜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된 2백19만 대의 차량이 대상이다.

- 테슬라는 이에 대해 해당 차량들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안전에 대한 테슬라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WSJ 기사

CNBC: Main Street is more optimistic this year even as inflation persists, survey says

미 소상공인들, “올해 초 사업 운영과 경제 전망에 낙관적”

- 골드만 삭스의 1만 중소기업인 목소리(10,000 Small Business Voices)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소상공인들이 2024년 초에 사업 운영과 전반적인 경제에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소비자와 기업이 올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자금 조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IMF 총재 "금리인하, 조금 늦는 게 너무 빠른 것보다 낫다"

"적절한 시기 오면 주저해선 안돼...지표 따라 행동해야" 골드만삭스·BoA 등도 인하 예상 시점 5월로 늦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연준)나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것은 다소 늦게 내리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점이 왔을 때는 금리인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1일(이하 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지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금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통화정책의 조기 완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